

번호: PO-MA-015					
제 목	일반인의 암정보 이용행태 및 관련 요인 Use of Cancer Information				
저 자 및 소 속	이명순1), 강민정1), 강건욱2), 장윤정2), 노행인2) 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 암정보연구과 Myoung-Soon Lee1), Min-Jung Kang1), Keon-Wook Kang2), Yoon-Jung Chang2), Hang-In Noh2) 1)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2)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Cancer Control and Evaluation, Cancer Information Branch				
분 야	의료관리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최근 우리사회에서 암환자 발생 및 사망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보건의료학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암환자 발생 예방과 암환자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수준 유지를 위한 적절한 정보 및 교육 제공이 중요하다.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암 관련 지식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이거나 단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실제로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제공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암정보 이용 행태 및 암정보 교육요구와 관련요인을 조사해서 일반인 대상의 암정보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p> <p>방법: 1) 조사대상집단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세이상 80세미만인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비례확률표본추출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개발 : 조사내용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암정보 이용행태 및 이용결과, 암정보 이용행태 관련요인 등이며,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조사설문서 형태로 개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 자료수집은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개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암정보 이용행태 및 이용결과, 암정보 이용행태 관련요인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암정보 이용행태 관련요인에 따른 암정보 이용행태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p> <p>결과: 1) 암정보 이용행태 및 이용결과 : 암정보 검색경험은 12.5%로 비교적 낮았으며, 암정보 습득채널은 대중매체가 65.5%로 가장 높았고, 병의원 및 보건소(18.4%), 가족, 친구 혹은 이웃(13.2%) 순이었다. 선호하는 암정보 검색채널(다중응답)은 인터넷 58.5%, TV 49.6%, 병의원 및 보건소 43.0%, 가족, 친구 혹은 이웃 42.2% 순이었다. 암정보 이용결과에서 암정보 도움정도는 5점 기준에 3.51, 암정보 습득정도는 5점 기준에 3.54로 나타났다. 2) 암정보 이용행태 관련요인 : 암정보 채널 접근성은 병의원 및 보건소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24.7%), 가족, 친구 및 이웃(16.0%) 순이었다. 채널에 대한 신뢰도는 암전문 연구 및 치료기관이 5점 기준에 4.12, 병의원 및 보건소 3.86, 건강관련 학회 및 협회 3.75 순이었으며, 대중매체 및 인터넷은 3.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암정보 검색 및 이용자신감은 5점 기준에 2.98로 낮았으나 항목별로 살펴볼 때, 암정보 검색보다는 찾은 암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결론: 일반인들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암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선호하는 암정보 검색채널 역시 인터넷, TV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채널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대중매체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 암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암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정보의 선택 및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는 암정보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p>					